writenmate

무료 전자책

체험단, 처음이라도 괜찮아요

신청부터 방문, 후기, 마감 관리까지
첫 한 달 시작 가이드

선정과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요. 이 책은 선정을 보장하지 않고,
처음 시작할 때 헤매지 않도록 순서와 요령을 정리한 안내서예요.

시작하기 전에

이 책을 이렇게 쓰세요

체험단을 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 만들었어요.

체험단은 대단한 재주가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. 다만 **준비하는 순서**와 **마감을 놓치지 않는 습관**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져요. 이 책은 그 순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.

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

체험단 선정은 업체가 정해요.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도 되는 달이 있고 안 되는 달이 있어요. 처음에는 한동안 선정이 없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이 책은 선정 확률을 **높일 수 있는 준비**를 알려드릴 뿐, 선정이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.

1 체험단이 뭐예요? 3p

2 업체가 블로그를 고르는 기준 4p

3 내 블로그 준비하기 5p

4 공고 고르는 법 6p

5 신청문 쓰는 법 7p

6 선정되면 바로 할 일 8p

7 방문 매너와 사진 찍기 9p

8 후기 쓰는 법 10p

9 마감과 일정 관리 12p

10 흔한 실수 10가지 13p

11 첫 한 달 계획과 체크리스트 14p

1

체험단이 뭐예요?

업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, 나는 직접 체험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방식이에요.

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**체험**이에요. 식사권, 시술, 제품 같은 것을 받고 후기를 쓰는 거라서, 돈을 버는 일이라기보다 **평소 쓰던 돈을 아끼는 취미**에 가까워요.

체험단의 3가지 종류

종류	어떤 방식인가요	예
방문형	식당·카페·미용실처럼 직접 가서 체험하고 후기를 써요.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해요.	맛집, 카페, 뷰티, 체험 공간
배송형	제품을 집으로 받아 써 보고 후기를 써요. 방문 일정은 필요 없어요.	식품, 생활용품, 화장품
기자단	업체나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. 분량·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요.	업체 소개, 서비스 소개

이런 분께 잘 맞아요

외식·카페·뷰티에 원래 쓰는 돈이 있는 분
사진 찍고 글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
정해진 마감을 지킬 수 있는 분

이런 분께는 맞지 않아요

글 쓸 시간을 전혀 낼 수 없는 분
마감이나 예약을 자주 놓치는 분
단기간에 큰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는 분

2

업체가 블로그를 고르는 기준

정확한 기준은 업체와 사이트마다 달라요. 아래는 공고와 후기에서 자주 확인되는 흐름이에요.

#	살펴보는 것	이렇게 준비하세요
1	**최근 글**	오랫동안 멈춘 블로그보다 최근에도 글이 올라오는 블로그가 믿음직해 보여요. 일주일에 1~2편이면 충분해요.
2	**사진 품질**	밝고 선명하게, 대상이 잘 보이게 찍어요. 비싼 장비는 필요 없어요. 낮에 창가에서 찍어도 달라져요.
3	**카테고리 일관성**	맛집 글, 여행 글, 육아 글이 뒤죽박죽이면 어떤 블로그인지 알기 어려워요. 중심 주제를 정해 두세요.
4	**글의 성실함**	사진만 나열하지 않고, 가 본 이유와 느낀 점이 있는 글이 좋아요. 짧아도 직접 쓴 티가 나야 해요.
5	**약속을 지키는 모습**	마감 안에 올리고, 요청한 키워드·사진 수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. 이게 쌓이면 다음 기회로 이어져요.

이웃 수, 방문자 수가 적어서 걱정이라면

이웃과 방문자 수를 보는 곳도 있지만, 처음부터 높을 필요는 없어요. 처음에는 **최근 글이 꾸준히 있고, 성실하게 쓴 블로그**라는 점을 보여 주는 쪽이 현실적이에요.

3

내 블로그 준비하기

신청하기 전에 한 번만 다듬어 두면, 이후 모든 신청에서 도움이 돼요.

첫 주에 해 둘 것

- [ ] **블로그 이름과 소개글**을 적어요. 무엇을 쓰는 블로그인지 한 줄로 보이게요. 예: “동네 맛집과 카페를 솔직하게 기록해요”
- [ ] **프로필 사진**을 넣어요. 얼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 비어 있지만 않게요.
- [ ] **카테고리를 3~5개**로 정리해요. 맛집, 카페, 일상처럼 큼직하게요.
- [ ] **첫 글 2~3편**을 올려요. 체험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 내 동네에서 내 돈으로 다녀온 곳을 기록하면 돼요.
- [ ] **활동 지역**을 정해요. 집에서 가까운 곳 중심으로 시작하면 방문이 쉬워요.

첫 글은 이렇게 쓰면 쉬워요

1) 왜 갔는지 한두 문장 → 2) 가게에 들어서서 본 것 → 3) 먹은 메뉴와 맛 → 4)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→ 5) 위치·영업시간 같은 정보. 이 순서만 지켜도 읽기 편한 글이 돼요.

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

가 보지 않은 곳을 다녀온 것처럼 쓰거나, 남의 사진·글을 가져다 쓰면 안 돼요. 체험단은 **직접 겪은 이야기**로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.

4

공고 고르는 법

많이 신청하는 것보다, 나에게 맞는 공고를 고르는 게 먼저예요.

공고에서 꼭 확인할 5가지

확인할 것	왜 중요한가요
거리·위치	멀면 방문 자체가 부담이에요. 처음엔 내가 자주 다니는 동네부터 고르세요.
이용 가능 요일·시간	방문형은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내 일정과 안 맞으면 선정돼도 가기 어려워요.
모집 인원 · 신청자 수	모집은 적은데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높아요. 모집 대비 신청자가 적은 공고가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어요.
제공 내용	식사권인지, 금액 한도가 있는지,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
리뷰 조건과 마감	사진 수, 글자 수, 필수 키워드, 마감일을 미리 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.

처음 시작하는 분께 추천하는 순서

1. 내 동네에서 걸어가거나 짧게 갈 수 있는 곳
2. 평일에 이용할 수 있어 일정 잡기 쉬운 곳
3. 모집 인원이 여럿이라 경쟁이 덜한 곳
4. 마감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 곳

한 번에 많이 신청하면 일정이 겹쳐요. **가지 못할 곳은 신청하지 않는 것**이 결국 평판을 지키는 길이에요.

5

신청문 쓰는 법

길게 쓸 필요 없어요. 세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.

신청문 공식 3단

1. **왜 이 가게인가요?** 위치, 메뉴, 평소 관심 등 구체적인 이유 한 가지
2. **내가 해 줄 수 있는 것** 올릴 사진, 글, 영상처럼 **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**
3. **방문 가능한 때** 가능한 요일·시간대와 후기를 올릴 시점

이런 신청문이 좋아요

"집 근처라 자주 지나다니는데 새로 생겨서 궁금했어요. 평일 저녁에 방문할 수 있고, 외관·메뉴·음식 사진을 충분히 찍어서 방문 후 3일 안에 후기를 올리겠습니다."

아쉬운 신청문

"안녕하세요. 체험단에 꼭 선정되고 싶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"

→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,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가 없어요.

신청문을 쓸 때 지킬 것

- 지킬 수 없는 약속(너무 빠른 날짜, 과장된 사진·영상 수)은 쓰지 마세요.
- 가 본 적 없는 곳을 가 본 것처럼 쓰지 마세요.
- 같은 문장을 모든 곳에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, 첫 문장만이라도 가게에 맞게 바꾸세요.
- 신청 전에 **공고 원문의 사진·위치·조건**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6

선정되면 바로 할 일

선정 연락을 받은 날에 정리해 두면 마감 때 허둥대지 않아요.

- [ ] **예약**: 방문형이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바로 예약해요. 체험단이라고 말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공고 안내를 따르세요.
- [ ] **리뷰 마감일**을 캘린더에 넣어요. 방문일이 아니라 **후기를 올려야 하는 날**이 중요해요.
- [ ] **필수 조건**을 적어 둬요: 사진 몇 장 이상, 글자 수, 필수 키워드, 지도 첨부, 업체 배너나 안내 문구.
- [ ] **일지**에 한 줄로 기록해요. (아래 예시 참고)

일지 한 줄 예시

업체	사이트	당첨일	제공	방문	리뷰 마감	상태
○○식당	○○사이트	10/12	3만 원 식사권	10/18 (토) 12시	10/25	예약 완료

※ 표는 예시예요. 엑셀이나 노트, 어디에 적어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한곳에 모아 두는 거예요.

일지를 쓰면 좋은 이유

- 마감이 겹치는 날을 미리 알 수 있어요.
- 한 달에 몇 곳을 다녀왔고 얼마만큼 제공받았는지 한눈에 보여요.
- 다음 신청 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가늠할 수 있어요.

7

방문 매너와 사진 찍기

사진은 후기의 절반이에요.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.

방문할 때 매너

- **예약한 시간**을 지켜요.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되면 반드시 미리 연락하세요.
-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**사장님께 양해**를 구해요. 다른 손님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.
- 제공받은 범위를 확인하고, 그 밖의 주문은 내 돈으로 계산해요.
- 불편한 점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정중하게, 후기에서는 솔직하되 예의 있게 써요.

사진은 이 순서로

#	찍을 것	포인트
1	**외관·간판**	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돼요. 간판 이름이 보이게요.
2	**내부 분위기**	자리, 인테리어, 주차 안내처럼 정보가 되는 것
3	**메뉴판**	가격이 보이게 한 장. 후기 정보에 도움이 돼요.
4	**음식·제품 전체**	한 상 차림이나 전체 모습을 먼저
5	**가까이서 한 컷**	질감, 단면, 토핑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부분
6	**먹는 장면·사용 장면**	실제로 이용한 모습이 신뢰를 줘요.

방문하는 동안 메모 3줄

맛(또는 사용감) · 분위기 · 기억에 남은 점. 이 세 줄만 있어도 집에 와서 글 쓰기가 훨씬 쉬워져요. 사진은 15~25장 정도 찍어 두면 고르기 편해요.

8

후기 쓰는 법

잘 쓴 후기보다, 조건을 지키면서 솔직하게 쓴 후기가 먼저예요.

후기 구성 5단계

#	내용	이렇게 쓰세요
1	**왜 갔나요**	체험단으로 방문했다는 점과, 이곳이 궁금했던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
2	**찾아가는 길·분위기**	위치, 주차, 들어섰을 때의 첫인상
3	**메뉴·체험 내용**	시킨 것, 맛이나 사용감을 사진 순서대로
4	**총평**	좋았던 점 중심으로, 아쉬운 점 한 가지도 솔직하게
5	**정보 정리**	주소, 영업시간, 휴무일, 예약 방법

제목 만드는 공식

지역 + 업종 + 특징 순서로 써 보세요.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말이 앞에 오게요.

좋은 제목

“서울 성수 파스타 맛집, 가족 모임하기 좋은 룸 있는 곳”

아쉬운 제목

“오늘 다녀온 곳 후기입니다”
→ 어디인지, 무엇이 특별한지 알 수 없어요.

8장 이어서

표시 문구와 마감 전 점검

제공받은 사실은 분명하게

체험단 후기는 **대가를 제공받고 쓴 글**이라는 점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게 밝혀야 해요. 업체가 정해 준 문구나 배너가 있으면 그대로 넣고, 없다면 글 맨 위에 “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”처럼 분명하게 적으세요. 자세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이런 표현은 조심하세요

“무조건 최고”, “여기만 한 곳은 없다”, “꼭 효과가 있다”처럼 **근거 없는 단정·과장**은 피하세요. 업체가 금지한 표현이 있는지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올리기 전 마지막 점검

- [ ] 필수 키워드가 정해진 횟수만큼, 어색하지 않게 들어갔나요?
- [ ] 사진 수와 글자 수 조건을 지켰나요?
- [ ] 지도나 위치 정보를 요청했다면 넣었나요?
- [ ] 업체 배너나 안내 문구를 요청대로 맨 위에 넣었나요?
- [ ] 가격, 주소, 영업시간 같은 **사실 정보**가 맞나요?
- [ ] 오탈자를 한 번 읽으며 확인했나요?

AI의 도움을 받는다면

글쓰기 도구나 AI는 **초안을 만드는 용도**로 쓰고, 내가 적은 메모와 실제 경험으로 고쳐 쓰세요. 가격·주소·영업시간 같은 사실은 직접 확인하세요. 내가 가 보지 않은 내용이 글에 들어가면 안 돼요.

9

마감과 일정 관리

체험단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“마감 지키기”예요.

캘린더는 두 종류로 나눠요

예약 캘린더	방문할 날짜와 시간. 가야 하는 날을 보는 달력이에요.
리뷰 마감 캘린더	후기를 올려야 하는 날. 방문 후 놓치기 쉬워서 따로 보는 게 좋아요.

하루 20분 루틴

아침 10분	새 공고를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담아 둬요.
저녁 10분	담아 둔 곳 중 일정이 맞는 곳만 골라 신청해요.
주 1회	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 방문을 한 번에 점검해요.

일정이 겹치지 않게

- 한 주에 소화할 수 있는 방문 횟수를 먼저 정하세요.
- 방문이 몰리는 주에는 새 신청을 쉬어도 괜찮아요.
- 마감 3일 전에는 알림을 받도록 해 두세요.

체험을 많이 하는 것보다 **한 곳 한 곳을 약속대로 끝내는 것**이 오래가는 방법이에요.

10

흔한 실수 10가지

처음 시작할 때 많이 겪는 실수예요.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.

#	실수	이렇게 하세요
1	**마감일을 놓쳐요**	선정되자마자 캘린더에 리뷰 마감을 넣어요.
2	**조건을 안 읽고 신청해요**	사진 수, 글자 수, 키워드, 요일을 먼저 확인해요.
3	**필수 키워드를 빠뜨려요**	올리기 전에 키워드 횟수를 세어 봐요.
4	**사진이 부족해요**	방문 때 순서대로 넉넉히 찍어 둬요.
5	**예약 후 연락 없이 못 가요**	못 가게 되면 바로 연락하고 일정을 조정해요.
6	**과장 표현을 써요**	직접 느낀 만큼만, 근거 있게 써요.
7	**제공받았다는 표시를 빼요**	안내 문구나 배너를 글 맨 위에 넣어요.
8	**같은 글을 복사해서 써요**	가게마다 내 경험을 새로 적어요.
9	**한꺼번에 너무 많이 신청해요**	소화 가능한 만큼만 신청해요.
10	**후기 링크 제출을 잊어요**	올린 뒤 사이트에 링크를 제출하고, 상태를 “완료”로 바꿔요.

11

첫 한 달 계획과 체크리스트

무리하지 않고 한 달만 해 보세요.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어요.

주	이번 주 할 일
1주 · 준비	모집 사이트 2~3곳 알아보기 · 블로그 이름·소개·카테고리 정리 · 첫 글 1~2편
2주 · 신청	공고 보는 기준 익히기 · 내 동네 공고 중 맞는 곳 고르기 · 신청문 쓰고 신청해 보기
3주 · 방문과 기록	선정된 곳이 있으면 예약·일정 기록 · 사진 순서대로 찍기 · 메모 3줄
4주 · 후기와 루틴	후기 쓰고 마감 전에 점검 · 링크 제출 · 한 달을 돌아보고 다음 달 신청 횟수 정하기

한 장 체크리스트

신청 전

- [ ] 거리·요일·시간이 맞는다
- [ ] 제공 내용과 조건을 읽었다
- [ ] 마감까지 지킬 수 있다

선정 후

- [ ] 예약했다
- [ ] 리뷰 마감을 캘린더에 넣었다
- [ ] 일지에 기록했다

방문

- [ ] 사진을 순서대로 찍었다
- [ ] 메모 3줄을 남겼다
- [ ] 양해를 구하고 찍었다

후기

- [ ] 제공받은 표시를 넣었다
- [ ] 키워드·사진 수를 지켰다
- [ ] 사실 정보를 확인했다
- [ ] 링크를 제출했다

마치며

천천히, 한 달만 해 보세요

체험단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, 나에게 맞는지 해 보는 일이에요.

이 책의 순서를 따라 한 달을 보내 보세요. 선정이 빨리 되는 분도, 조금 늦는 분도 있어요. 중요한 건 **무리하지 않고, 약속을 지키는 습관**을 만드는 거예요.

writenmate가 하는 일

writenmate는 체험단을 하는 분들이 **공고 찾기, 신청, 일정·마감 관리, 후기 쓰기**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예요. 이 책의 일지와 캘린더, 후기 쓰기를 직접 써 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둘러보세요.

writenmate.co.kr

이 책은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서이며, 체험단 선정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모집 사이트의 조건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각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
© writenmate. 자유롭게 공유해도 좋지만, 내용을 바꿔 판매하지는 말아 주세요.